



2009년 1월 2일

www.ytn.co.kr

100-998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5가 6-1 YTN 타워

제 78 호

# 희망한국, 힘모아 미래로!

## 신년사

YTN 가족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올해 회사가 세운 아젠다는 “희망한국, 힘 모아 미래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새해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가 돼야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난관들을 잘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YTN은 한국의 당당한 언론기업으로 우뚝 세우는 일은 YTN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공동의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목표가 바로 회사와 저의 꿈과 희망과 목표가 되도록 융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YTN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진통의 시간 속에 서로를 할친 상처가 너무 많고 파인 골이 너무 깊습니다. 이제는 모든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의견이 달라 적대시했던 선배도 후배도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있는 상대에게서 사랑과 믿음을 찾아가는 일 그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학합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회사는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당부합니다. 올해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국민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흑자 실현을 통한 회사의 발전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 매체가 진입함으로써 보도매체 사이에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회사는 당장 2월 재승인 심사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생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승인을 꼭 따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조를 포함한 사원 모두도 재승인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함께 제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개정되면 공기업 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YTN의 존립을 흔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영화 시도 역시 노사가 힘을 합쳐 정면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장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구성돼 있는 ‘YTN 민영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새해 초부터 본격화시키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회사 경영 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전 종무식에서 밝혔듯, 올해 경영 계획의 큰 갈래는 적극적인 영업과 효율적인 비용관리로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난해 달성했던 광고매출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공격적인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기에 회사는 원가를 줄여 나가는 긴축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사장 이하 임원부터 상여금을 300% 반납하겠습니다. 국. 실장 이상 간부들도 상여금을 200% 반납하겠습니다.

둘째로 비용 예산을 10% 삭감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신청한 예산 가운데 90%만 반영하겠습니다. 각 실. 국장들은 예산 운용을 책임지고 통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경영 계획은 뉴스 콘텐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YTN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였을 때 더욱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는 언론학자들로부터 가장 공정성이 높은 매체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도 외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실 보도와 더불어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보도에 앞장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뉴스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 제작과 송출 장비의 디지털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 프리미엄 뉴스 채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져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도전하는 창조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당부합니다. 창조력 있는 사원을 우대하겠습니다. 중단된 돌발영상도 다시 살려 내겠습니다. 올해 제2, 제3의 돌발영상 같은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 YTN 가족 여러분

지난해 YTN 식구들은 창사 이래 최악의 노사 갈등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약진의 계기로 삼읍시다. 외부의 시련과 급격한 환경 변화 등 여러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YTN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회사가 세운 어젠다처럼 ‘힘모아 미래로’ 나아갑시다. 기축년 한해 임직원 여러분가 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09. 1. 2 사장

# YTN 공정성 1위

YTN이 국내 언론학자들과 언론 분야 연구자들이 뽑은 가장 공정성이 높은 매체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최근 한국언론학회 회원 2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YTN이 17개 신문·방송·온라인 매체 가운데 ‘가장 공정한 미디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은 또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와 ‘가장 유용한 미디어’ 부문에서도 KBS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방송매체 4개와 종합일간지 7개, 인터넷언론 6개 등 모두 17개 매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신뢰성 8개 문항, 공정성 6개 문항, 유용성 8개 문항이 각각 5점 만점 척도로 측정됐다.

순위	공정성	신뢰성	유용성
1	YTN 3.1761	KBS 3.3936	KBS 3.4078
2	KBS 3.0780	YTN 3.3846	YTN 3.4012
3	경향신문 2.9711	경향신문 3.2923	MBC 3.3876
4	MBC 2.9556	한겨레 3.2127	다음 3.3548
5	다음 2.7957	MBC 3.2016	네이버 3.3422
6	한국일보 2.7910	SBS 2.8750	SBS 3.1976

## YTN 장애인 위한 자막방송 실시

2009년부터는 장애인들도 뉴스전문채널인 YTN을 자막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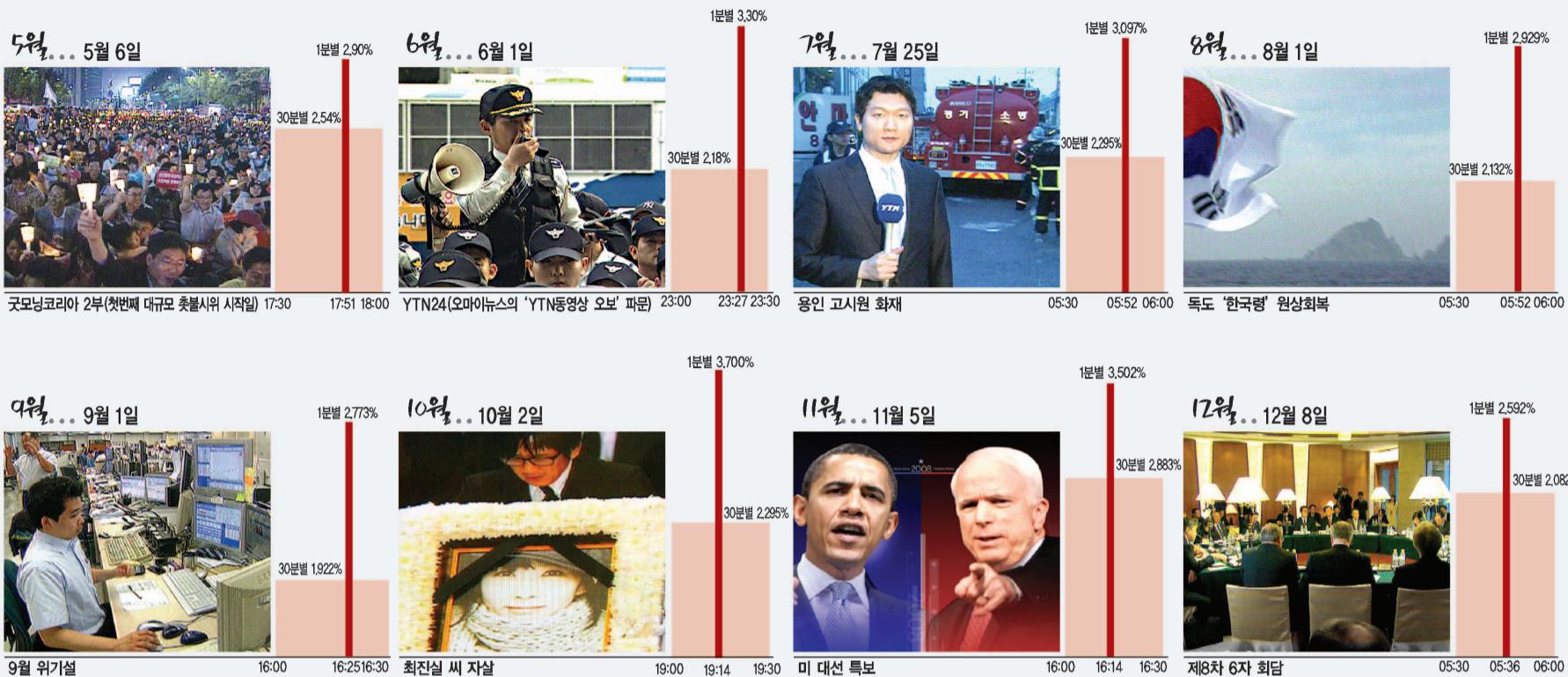
또 2009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은 매일 같은 시각에 장애인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는 외부 시험방송을 실시하며 시험방송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본방송은 2월 1일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 사이언스TV 공익채널 선정

YTN의 과학 전문채널인 사이언스TV가 2009년도 과학기술 진흥 분야 공익채널로 선정됐다.

사이언스TV가 내년도 과학기술 진흥 분야 공익채널로 단독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1,400만 케이블 TV 가입자와 200만 위성방송 가입자 모두에게 의무전송채널로 제공된다.

## 이달의 최고 시청률



## 게시판

### ■ 2008 연말포상

#### YTN 대상

박기용 마케팅1팀 : 공기업 및 지자체 광고 목표 초과달성을 기여

#### 특별상

• 이병우 마케팅2팀 • 한상규 사업1팀 • 원경태 보도국 • 기술연구소 • 사이언스TV본부

#### 최우수프로그램상

• 이성모, 최계영, 이승주, 김종완, 윤원식 영상기획팀 : <위대한 문화 유산>

#### 모범사원상

• 민병호 홍보팀 • 안용고 디자인기획팀 • 백승하 마케팅기획팀 • 김갑재 총무팀 • 신현민 관계팀 • 김대원 타워운영팀 • 임기현 국제부 • 정혜운 문화과학부 • 이준호 그래픽팀 • 윤재희 뉴스5팀 • 김빈나 영상편집팀 • 이덕희 제작기술팀 • 송기섭 제작기술팀 • 김형욱 장비관리팀 • 김영철 송출기술팀 • 조주현 출판팀 • 정경남 인프라팀 • 이용구 편성기획팀 • 이상훈 제작팀

#### 사회유공자

• 박영숙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언스 WIDE 프로젝트 추진 및 단독 공익채널 선정 추진 • 이상윤 (주)티브로드 안양방송 YTN-SO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 기여 • 최용훈 (주)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YTN-SO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 기여 • 이종성 (주)금강방송 YTN-SO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 기여 • 문병석 청주, 충북영업소 광고 목표 초과달성을 기여 • 정남 정남프로덕션 광고목표 초과달성을 기여

#### 공로상

• 최종인 마케팅3팀 • 장영환 매체협력팀 • 서영진 총무팀 • 최재일 구매팀 • 김준형 타워운영팀 • 박상철 타워운영팀 • 오민철 인프라팀 • 이재우 장비관리팀 • 전봉규, 임세혁 제작기술팀 • 오광식, 박선우, 김민태, 홍덕태 출판팀 • 김종술 편성기획팀

#### ■ 4분기 포상

#### 특종상 금상

• 김웅래 사회1부 • 시철우 영상취재팀 : '장안동 업주, 경찰 상납장부 첫 확인' 보도

#### 특종상 은상

• 강진원 사회1부, 강영관 영상취재팀 : '눈먼 돈 유가보조금, 당국은 깜깜' 보도 • 홍석근 사회1부, 강영관 영상취재팀 : '식품 내 이물질 발견에 따른 업체의 미숙한 대응 지적과 업체 해명 제시' 보도

#### 특종상 동상

• 이승현, 김지선 사회1부 • 최준영 영상취재팀 : 안양 보험금 노리고 어머니 살해한 아들 단독 보도 • 김종호 사회2부 : '시민이 잡은 강도 경찰이 잡았다고 조작' 보도

#### SO 공로상

• 박효석 충부방송 : 충남지역에서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프로그램의 기여 • 유경모 HCN 충북방송 : 충북지역에서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프로그램의 기여 • 이해진 C&M : 서울지역에서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프로그램의 기여 • 임세혁 수원방송 : 경기도 수원지역에서의 리포트 제공을 통한 뉴스프로그램의 기여

#### 사이언스TV 우수프로그램상

• 자체제작 - 김신영, 김영록 제작팀 : 대한민국 5대 암 시리즈 방송으로 시청자 관심 유발 • 외주제작 - 메이프로덕션 : 흥미진진한 교양 과학 도서를 다양하게 소개

#### ■ 3분기 포상

#### 특종상 금상

• 김지선 · 장아영 사회1부, 최윤석 · 이상은 영상취재팀 : '안양 초등생 살해 용의자 검거 특종' 보도

#### 특종상 은상

• 김도원 사회1부, 김현미 영상취재팀 : '구타에 성추행까지, 의경 자살기도 특종' 보도 • 김수진 뉴스2팀, 성도현 차장대우, 정철우 차장대우 영상취재팀 : '은평 자살과 은행 자녀 특별 전형 논란' 보도

#### 특종상 동상

• 허성준 사회1부, 강영관 영상취재팀 : 맥도날드 햄버거 금속 이물질 특종 보도 • 전준형 뉴스6팀 : 'GS칼텍스, 소유주 아들 회사에 입찰 특혜 의혹' 보도 • 박성호 부장 워싱턴지국 : 미국, 아프간에 경찰 파견 요청 • 김용건 차장대우, 이경아 차장대우 국제부, 유재복 차장대우 북경지국 : 중국 쓰촨성 대지진 신속 대응 보도

#### 우수프로그램상

• 이교준 차장대우, 김호준 차장대우, 김승재 차장대우, 고한석 경제부 : YTN 스페셜 <창조경영, 미래의 경쟁력(10부작)>

#### 사이언스TV 우수프로그램상

• 자체제작 - '끄러기 과학여행팀' : <니하오 차이나! "중국 하남성" 편> / 외주제작 - 김소정 프로덕션미디어 : 영화보다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 공로상

• 디지털기획팀 • 주조정실 근무자(현성운영팀, 송출기술팀) • 인프라팀, 정해봉 차장대우 기술관리팀 • 김대공 편성기획팀 • 이홍렬 부국장대우 보도국, 박순표 정치부, 황순옥 사회1부, 이현숙 미디어전략팀 • 범희철 차장대우 그래픽팀 • 이상천 차장대우 제작기술팀 • 오광식 차장대우, 박종대 차장대우 중계팀 • 이병우 마케팅2팀

#### SO공로상

• 강성명 호남방송 • 권정숙 가야방송 • 김남호 전북방송 • 한의희 기남방송

#### 기구개편

신설 ▲ 총무국 관계팀, 마케팅국 마케팅3팀, 대외협력국 사업2팀, 명칭변경 ▲ 대외협력국 사업팀→사업1팀 9.1 / 신설 ▲ 해설위원실, 경영기획실 법무팀, 총무국 구매팀, 보도국 보도제작팀, 기술국 장비관리팀, 명칭변경 ▲ 대외협력→미디어사업국, 기술국 기술관리팀→기술기획팀, 기구분리 ▲ 홍보실의팀→심의실, 홍보팀 11.19

#### 임사

윤성희 경영관리팀 6.2 / 곽정환 타워운영팀, 정상일 타워운영팀 7.11 / 구본홍 대표이사 7.17 / 오세훈 타워운영팀, 강희정 총무팀 9.1 / 김동원 영상편집팀, 김희정 영상편집팀 10.1 / 배석규 전무, 김사모 상무 11.18 / 손재희 법무팀장 12.1 / 임기해 인프라팀 12.15

#### 퇴사

강병운 문화과학부 5.28 / 유현주 차장대우 앵커팀 8.26 / 윤종원 인프라팀 11.21 / 김하늘 영상편집팀 9.5 / 조경진 영상편집팀 9.30 / 이동원 타워운영팀 6.25 / 박소현 문화과학부 7.16 / 김재윤 대표이사, 곽정환 타워운영팀 7.17 / 노종연 차장대우 앵커팀, 현덕수 차장대우 뉴스1팀, 우장군 차장 뉴스6팀, 권석재 영상편집팀, 조승호 차장 국제부, 정유신 뉴스기획팀 10.7 / 김사모 총무국장 11.18

#### 부음

정성웅 차장대우 송출기술팀 방부상 6.13 / 김희석 타워운영팀 부친상 6.17 / 김민태 차장대우 중계팀 부친상 7.4 / 정명렬 기술연구소장 부친상 8.28 / 김경록 차장대우 광주지국 방부상 9.4일 / 박형일 차장대우 디지털기획팀 부친상 9.9 / 김정한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부친상 9.13 / 정영근 편집부국장 모친상 10.24 / YTN라디오과 김익진 부장 모친상 10.25 / 김태훈 청주지국 방모상 11.4 / 박주억 차장 부산지국 부친상 11.26 / 이선영 경영관리팀 방부상 12.19 / 나경환 영상취재팀 부친상 12.25

#### 결혼

이경재 스포츠부 6.29 / 주형우 기획총괄팀 11.29일 / 이재혁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 11.22일 / 박새영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11.8 / 신은영 디자인기획팀 11.8 / 박천우 총무팀 10.19 / 김동원 사이언스TV 편성기획팀 10.3 / 장명호 차장대우 영상취재팀 9.21 / 이선아 뉴스3팀, 이강진 사회2부 12.14 / 장혜려 총무팀 12.13 / 김종호 부산지국 12.28



구본홍 YTN 사장과 YTN 시청자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회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지난달 3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한국기자협회 YTN지회(지회장 호준석)도 YTN사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웃돕기 성금을 기축년 새해 첫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 미녀 2인방, 영상·음향은 내가 책임진다!

김 미 정 영상편집팀  
제1회 디지털영상편집경진대회  
전문가부문 우수상

김 미 연 편성운영팀  
제40회 서울창작음악제  
관현악부문 작곡상

YTN의 음악과 화면은 내손 안에 있다고 말하는 당찬 여자들이 있다. 꽉 찬 일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주최하는 상을 휩쓸고 있다. 그들에게 수상소감과 포부를 들어본다.

## 특훈(?)과 함께 노하우를 알려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편집팀 김미정입니다. YTN에 입사한지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뉴스편집에 대해선 잘 모르겠고, 부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참 어렵구나, 그러던 차에 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상편집경진대회. 한번 도전해보자!

근무가 끝나고 남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던 잠시간도 더 줄였습니다. 2주 뒤, 다크서클이 광대뼈 밑까지 내려올 즈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1회 영상편집 경진대회가 5월 17일 토요일 상암동 DMS에서 열렸습니다. 타사에 경력과 실력이 쟁쟁한 선배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어 처음부터 큰 기대 없이, 부담 없이 출발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죽을 필요 없다! 괜찮다!! 괜찮다!!! 주문을 외웠죠.

10시부터 시작된 전문가 부분 시험. 대회장 분위기는 참 자유로웠습니다. 일반, 학생부분 참가자들, 세미나 참가 한 사람들, 응원 해 주려 오신 선배님들도 바로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쭉 둘러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사진 찍고, 심사위원들도 돌아다니시며 보시고 많은 시선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크게~! 느꼈죠. 화면은 녹차밭. 음악은 6~8곡에서 맘에 드는 곡을 선택해 1분 이상의 영상물을 만드는 것 이었습니다. 순간, 며칠 전 본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가 생각나면서 유독 한 음악이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것을 붙일 때마다 영화의 느낌을 떠올리며 영상을 붙여나갔죠. 그때 기분은 평소 느낀 감정이 아니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참 묵혔습니다. 리듬을 타면서 편집하는 제 모습을 보면 참 잘 즐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도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즐긴 나머지 시간을 신경을 못 썼던 거죠~ 하하 ^\_^; 10분 남았답니다. 주위에서 쳐다보는 큰 시선들이 아까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서 화면이 잘 안보였습니다. 그래! 이젠 어쩔 수 없다! 완성에 의의를 두자!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파일로 만들려는데 늘 썼던 편집 아이콘이 안 보였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혼자 끙끙거리며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F11~’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완성 파일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죠 ^\_^

60분의 시험시간이 지나고, 시상식까지 420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전문가 부분 시상식! 참가 한 것에 의의를 두고, 완성물을 제출 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경품으로 받은 USB에 감사하며 딴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우! 첫 수상자 이름에 제 이름이 불리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놀라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트로피가 손에 잡히는 순간! 연습했던 2주간의 시간, 격려해 주셨던 많은 선배님들의 모습이 타임라인 커서를 빠르게 서치하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관심 덕분에 상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수상소감 말하고 싶었지만 안 시켜주시더라고요~ㅋ 대신 게시판에 글 써주셔서 글로 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금 받으면 떡볶이 사라고 했던 선배님~ 말이 씨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잘 했다고 오히려 밥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회장에 야퇴하고 와 주신 선배님, 주말을 반납하고 응원 해 주시려 오신 선배님들, 상 받았다고 메시지 전화 주셨던 선배님들, 게시판에 축하글 써주시고 격려 해 주셨던 많은 분들, 2주간 특훈(?)과 함께 노하우를 알려주신 선배님 모두 감사합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고, 내년엔 더 큰 상 받으려고 노력 할 겁니다. 영상편집팀. 취재팀, 부장님, 선배님, 동기 너무 감사합니다.

YTN 식구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 피와 땀으로 만든 영상에 호흡과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16층 음악편집실, 17층 사이언스TV본부 음악실. 음악과 함께 일하는 제가 있습니다.

작년 7월 입사 후 사이언스TV와 YTN라디오 개국을 준비하며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중하게 얻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장석문 선배님을 만난 것! 언제나 ‘넌 잘할 수 있다’며 격려해주시는 선배님은 제게 아버지같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선배님의 음악에 대한 깊은 지식과 감각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며 닮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 복을 얻었습니다. 사내 밴드 Y-MUSIC이 작년에 ‘제1회 직장인 뮤직페스티벌’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한 것 기억하세요? 저는 Y-MUSIC의 어설픈 키보디스트입니다.

클래식 작곡을 전공해서 밴드라는 곳이 아직 낯설지만, 선배님들의 훌륭한 연주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Y-MUSIC은 앞으로 있을 공연 준비와 다음 대회 도전을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 동호회실에서 Rock음악을 연주하며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난 5월 29일은 ‘제40회 서울 창작 음악제’에서 ‘관현악 부문 작곡상’을 받아 ‘성남시향 교향악단’의 연주로 제가 작곡한 오케스트라 곡의 입상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축하 속에 연주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얻은 것은 ‘식신’이라는 별명 ^-^;;;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가끔 부끄럽기도 한 별명이지만 잘 먹고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배고픔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얘기하고 잘 먹겠습니다~!^-^

음악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와 장석문 선배님이 일하고 있는 음악실에서는 YTN뿐만 아니라 사이언스TV, DMB, YTN라디오의 모든 음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7층 녹음실에서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성우 나레이션 더빙도 하고 있구요.

YTN, 사이언스TV, DMB, YTN라디오를 함께 맡아 일하다 보니 여러 선배님들이 동시에 테일을 급하게 가져오시기도 하고, 16층과 17층 일이 겹치는 일이 많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TV 자체 제작 프로그램만 해도 10개가 넘고, DMB와 라디오의 제작 프로그램, YTN 뉴스 리포트와 다양한 영상, 특집과 선거방송, SB와 IID등의 광고, 포럼 등의 행사 등 음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새로 나온 음반을 구매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대여하여 자료를 보충하고, 좋은 음반을 찾기 위해 음악을 많이 듣는데, 먼지 쌓인 음반 속에 숨겨져 있던 명곡을 찾았을 때는 생각지 못한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행복합니다. ^-^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영상에 호흡과 생기를 불어 넣고, 음악이라는 도구로 시청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처음의 순수한 열정을 간직하면서 밝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편성운영팀, 사이언스TV 선배님들 감사드려요♡



# 풍부한 정보를 쉽게 전달 돌발질문은 생방송 묘미

**다시 찾은 방송현장, 행복하고 두려운 마음  
진행자의 퍼스널리티 · 종합적인 팀워크 중요**

‘주동원의 뉴스 전망대’ 진행하는 **주 동 원** 해설위원실장

서정호 그라피팀

바쁜 출근시간대 뉴스전문 YTN FM에서 뜬금없이 낭랑한 목소리로 낭송되는 시가 들려온다. 바로 채널을 확인하지만 틀림없이 94.5 MHz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주동원 앵커가 청취자의 시각에서 예리하게 맥을 짚어간다.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목소리로… 주동원 앵커에게 ‘주동원의 뉴스 전망대’의 인기 비결과 제작과정을 들어봤다.

## 오프닝에 시 구절을 종종 인용하는데 바쁜 출근시간대에 시를 선택한 이유와 의미는

때론 상징과 함축적인 멘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인용했습니다.

시는 지금껏 3차례 줄여서 인용했습니다. 시구절이 끝나면 한 문장으로 짧게 나름대로의 촌평을 붙이는 식이었습니다.

사상최대 규모의 인파가 서울 도심한복판을 밟혔던 6.10 촛불집회 다음날 아침에는 ‘김수영’ 시인의 ‘풀’을 줄여서 낭독했습니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도 먼저 웃는다.

여기서의 풀은 민초들, 민의의 함성은 아닐른지 어둠을 밝히는 촛불민심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풀잎처럼 드러누웠습니다.

이런 식 이었습니다. 시의 일부 귀절을 오프닝멘트에서 인용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애청자의 판단에 맡겨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작은 의욕도 있었겠지요.

## 기자로서는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뒤늦게 마이크를 잡은 소감은

TBC와 KBS, SBS를 거쳐 YTN에서 올해 꼭 30년째 와일의 방송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잠시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굽이치는 격동의 세월을 현장과 테스크 또는 뒷전(?)에서 보냈지만 대기자 생활 1년 5개월을 끝낼 때에는 다시 현장을 찾는 방송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니 잠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여하간 다시 YTN라디오 ‘뉴스 전망대’의 뉴스진행자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운 마음입니다.

**틀을 벗어난 돌발적인 질문에 시청자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예상했던 결과인지, 또 답변하는 기자들의 불만은 없는지**

뉴스전문채널로서 YTN라디오가 성공하려면 차별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BS에서 아침 8시 라디오뉴스 앵커를 맡아 지금과 비슷한 기자출연의 뉴스 전망대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침 8시 뉴스대는 출근시간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30년간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지상파와의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보다 같은 시간에 풍부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전달해 보자 그리고 생방송의 묘미도 가능하다면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것 이었습니다.

돌발질문은 사실 저도 모르게 정보 욕심에서 애드리브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석유 값을 비롯한 경제문제나 오바마와 맥케인 대표적인 정강의 차이점, EC의 정치적인 통합을 위한 아일랜드의 투표 소식 등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부 김주환기자나 경제부 이교준기자 사회부 이종구기자 정석영기자나 이경아기자, 신웅진기자를 비롯한 국제부기자와 스포츠전문가 최동호씨를 믿는 마음이 더 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파격이 차별화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실험정신에서 나온 계산의 산물쯤으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지면을 빌어 해명하고 싶은 것은 후배기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위한 질문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날 때 가급적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연기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마음 상하 후배 출연기자들이 있다면 미안한 심정을 전합니다.

## 오전 8시 방송 시간에 맞추려면 하루일과 시작 시간은, 방송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가급적 타자의 9시뉴스를 봅니다. 아침에는 회사에 6시 40분경에 도착해서 20분 정도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이나 사설 등을 훑어봅니다.

18층 라디오 스튜디오에 7시에서 7시 10분경에 도

착하면 그때부터는 뉴스전망대가 시작하는 8시 직전까지 거의 쉴틈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유석현 국장이 골격을 짜고 민완기자였다가 최근 라디오 PD로 맹활약(고생)하고 있는 장민수기자가 세밀한 밑그림을 그린 큐시트를 짜는게 통과의례입니다.

유석현국장과 상의해 출연기자들의 순서를 그날의 이슈에 맞춰 정한뒤에 출연기자들의 질문 원고가 들어오면 전화를 걸어 다른 부가질문을 하겠다고 알려주거나 순서를 바꾸자는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기자리포트의 더빙을 포함해 깔끔한 잔손질과 일손 맵시로 주목받고 있는 맹렬 여성 유진화양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략 7시 45분에서 48분 사이에 스트레이트뉴스와 기자리포트 원고가 확정돼 들어오면 그때부터 번개같이 기사를 첨삭하게 됩니다. 출발새아침의 강성옥진행자가 클로징멘트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남은시간을 불과 1분 30초전입니다. 순식간에 원고 추리고 귀에 이어폰 꽂고 목이 갈라질까봐 손에 들고 들어간 보릿자 한잔 마시면 어느덧 뉴스전망대 8시 불이 켜지곤 합니다.

## 정치, 경제 등 모든 현안을 깨뚫고 있다는 느낌인데 시사와 정보, 뉴스들을 참고하는 주요 경로는

일단 기자생활 30년의 경력이 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정치부는 선거당시 파견외에는 현장에서 뛰어 본적은 없습니다.

긴장은 되지만 뉴스나 기사와 함께 지내온 것이 이제까지의 생활인자라 긍정적인 시각에서 최소한 진행자의 소홀함 때문에 지적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방송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현안을 쉽게 정리하고, ‘성우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 등 탁월한 진행이 이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라디오방송은 특히 진행자의 퍼스널리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뒤에서 아침 8시 1시간 생방송인 ‘뉴스전망대’를 큰 틀에서 조율하는 유석현국장과 장민수 기자, 뉴스 공정성, 정보를 풀어주는 YTN출연기자들의 풍부한 식견, 시사이슈이지만 재미, 때로는 촌철살인의 멘트와 같은 종합적인 팀워크와 소프트웨어가 애청자들의 관심과 청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정보의 바다에서 뉴스를 취사선택하여 애청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출연기자들에게 사랑노래 보냅니다.

# 라이브콘서트처럼 언제나 살아있는 방송을…

개국 첫 방송 '정오종합뉴스' 진행한 황현주 아나운서

국내 최초 뉴스전문 YTN라디오가 지난 4월 30일 '정오종합뉴스'를 시작으로 개국했다. 정오종합뉴스를 YTN 김영수 앵커와 공동 진행한 황현주 아나운서를 만났다. 황 아나운서는 YTN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는데, 바로 YTN타워 로비를 직접 디자인 했다. 로비와 안내데스크의 디자인에 그의 고뇌와 땀방울이 스며들었다고… 지금은 YTN 라디오에서 땀과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한다.

**본인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호기심 소녀.

**라디오 개국을 알리는 첫 방송을 진행했는데 소감은**  
그야 말로 소름이 돋았다. 소름 돋치는 짜릿한 쾌감으로 YTN 라디오의 탄생을 맞이했다.

**YTN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공이 실내건축분야라서 방송 일을 결심하기 전까지 건축회사에서 한 때 디자이너로 일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마지막으로 했던 디자인이 YTN 로비와 안내데스크 공간이 되어 있을 줄이야. 정말 신기하다. 직접 작업했던 디자인이 시공됐다는 사실을 5년 만에 알았다. 날 기다렸나?ㅋㅋ 안내데스크에 새워진 큰 벽면과 바닥면의 재질과 소재가 같다. 마치 종이를 찢어 올린 듯.

**라디오만이 갖는 매력은**

청각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 주는 공간. 숨소리마저 함께 할 수 있어 그 긴박감과 긴장감이 함께 전달된다. 살아있는 생생한 뉴스를 더욱 숨 가쁘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특히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 일을 해야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마치 함께 숨 쉬는 것처럼…

**'24시간 뉴스'에 대한 부담은**

목이 타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하고 있다. 요즘 가끔은 24시간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회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볼 때가 있다. 그만큼 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일까. 다만, 라디오 뉴스를 보도해야 할 아나운서의 가슴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방송시간만 보통 5,6시간. 거의 자투리 시간이 없이 방송을 위해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의 짐이 천근만근이다. 특히 야간 근무의 경우, 매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24시간 내내 뉴스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이 글썽. 지난달에는 낮 근무를 하다가 이번 달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 9시경부터 새벽 3시정도까지 매일 회사의 밤을 지키다가 눈이 반쯤감긴 채 집으로 향한다. 주말근무의 경우도 거의 쉴 틈 없이 연달아 4시간동안 뉴스를 진행하다가 목이 타들어갈 즘 되면 근무가 끝난다. 하지만, 언밸런스한 근무가 곧 균형을 잡아나가 곧 '흐린 후 캠'이 되어 맑게 빛날 거라 믿고 있다.

**일하면서 어려운 점, 아나운서의 생명인 목소리 관리는**

한 선배가 "너는 여름에도 스카프 두르고 다닐 거지?"라고 말했을 만큼, 스카프를 칭칭 두르고 다닌다. 사물함에도 상시비치 중이다. 스카프가 없는 날은 외투 상시 비치 중. 이것은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방송사를 누비며 통통 튀는 생생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계신 원로 성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목소리 관리 팁중 하나

다. 더위도 목만큼은 알아서 감아주라는 사실.

하나 더는 노래방에도 자주 가지 않도록 하며, 가더라도 몸을 사리며 목소리를 아끼라는 충고를 들은 이후로는 선생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 어렸을 때는 노래방 걸이었는데, 지금은 스카프 걸 모드로 전환 중.

**아나운서로 일하는 것,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과 현실과의 차이는**

상상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동화 속 상상의 나라를 꿈꿨던 것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 여수MBC 아나운서-뉴스앵커, 생방송 화제집중MC, VJ파일MC, 별이 빛나는 밤에 DJ / SBS기상캐스터-모닝와이드, 경제와 생활, 나이트라인 기상정보 / 한국경제TV 앵커-의학전문프로그램 MC / CBS 아나운서-뉴스앵커, CBS 음악회 MC, 인터넷 핫뉴스 / CGNTV-행복토크 책으로 만드는 세상, TV 빛과 소금.

돌이켜보면, 우열을 가릴 수 없이 한 순간 한 순간이 모두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



을 가진 그녀이지만, 그래서 더욱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예쁜 여인이라 좋다. 뜨겁고 예쁜 그녀. 누가 데려 가시려나 ~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살갑게 대하고 싶은 그녀. 그녀는 뜨거웠고 예뻤다.'

**포부, YTN라디오 앞날에 바라는 것은**

"아나운서에게 립싱크는 허락되지 않는다. 언제나 라이브 콘서트여야 한다."

주어진 원고를 유창하게 읽어내려 가는 게 아나운서의 역할이라면 저 황현주는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정보를 전하든지 단순히 원고를 숙지하려기보다는 그 내용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두 다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두 귀를 열지 않

고, 두 귀가 허락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아나운서'를 지향한다. 즉, 책상머리가 아닌 세상 속으로 달려가 살아있는 정보들을 흡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진솔한 방송을 하고 싶다. 그래야만 밤잠을 설쳐가며 취재한 기자나 극지방도 마다하지 않고 촬영을 강행한 카메라기자처럼 한 편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협업자들의 땀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문맹 노인부터 시각장애우까지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달려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 황현주를 기대해주시길… 단 1분을 방송하더라도 라이브콘서트처럼 진실이 살아 있는 방송을 하도록 끊이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YTN라디오 앞날에 바라는 것은?**

YTN FM,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도전문 방송이기에 뉴스 정보의 정확성만큼이나 잘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실성과 생생함을 원액으로 시청자들과 대화하듯 풀어가는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빨리 자리를 잡아 아나운서 인력 총원이 좀 이루어져 업무 과다로 인한 피로 누적이 신속히 풀리길 간절히 바란다. ㅋㅋ '흐린 후 캠'이 되어 맑게 빛나길…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 영화처럼 사라진 라이더…

촛불집회취재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인 영상취재 팀 야근이었던 6월 5일 현충일 전날, 폭주족 취재 일정이 올라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폭주족은 3·1절이나 8·15 광복절 전날 대규모로 움직이며, 경찰도 이날은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폭주족 취재라니… 가뜩이나 촛불집회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투덜거리며 취재를 나가면서 그림 안 되면 무조건 철수한다고 이여진 기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처음 도착한 서초경찰서에는 전직 폭주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폭주족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집단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거리를 활보하며 그저 자기들을 쳐다봐주고 관심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폭주족은 사라지고 폭력과 절도 성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을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전직폭주족의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강남에는 여의도파, 강북에는 뚝섬파가 있고, 두 파는 서로 앙숙이며 남의 구역을 넘어가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 물론 폭력으로 말이다. 카폭과 오폭이 있는데 옛날에는 따로 폭주를 즐겼지만 지금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 또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 폭주족 뒷자리에 타려는 여자들을 ‘냄비’라는 속어로 부르고 이 출신의 여자연예인도 있다는 것 등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폭주족들이 모여 있다는 원효대교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21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뉴스 보도 부문상을 수상한 김윤석 기자. 김기자는 생생한 화면과 현장음으로 폭주족의 실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줘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단 아래로 향했다. 정말 많이 모여 있었다. 촬영을 위해 조명을 비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우리 주위에 몰려든 폭주족들은 그냥 방송용 카메라를 신기해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이었다. 과연 이들이 그런 짓들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엔진에서 나오는 엄청난 굉음으로 짜증이 날 때 쯤 리더에 의해 출발하면서 이들의 불법은 시작되었다. 신호무시는 기본,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모는 것은 애교다.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가

로 막고 불법 유턴, 마주 오는 차에 정면으로 달려가면서 부딪치기 직전에 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내내 마음 졸여야 했다. 취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취재차 옆에서 사고가 났다. 뒤틱을 맡은 리더를 누군가 와서 받아버린 것이다. 쓰러진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려 화가 난 리더는 일어나자마자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가 촬영 중인 걸 알게 되면서 폭력을 멈추었다.

무사히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우연히 야근을 표시해둔 달력을 보았다. 8월 14일 또 야근이다. 전직폭주족 말에 의하면 이날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한다. 강남 강북 연합으로…

이 리포트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왔을 때 1500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왔을 정도로 폭주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수습답지 않게 취재를 잘한 여진후배와, 선루프 취재차에서 내 허리를 꼭 잡아준 오디오맨 동욱군과 폭주족을 한번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며 안전하게 운전해주신 야간 조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P.S. 마포대교위에서 폭주족을 한번 놓칠 뻔 했는데 어디선가 BMW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분이 도와주시더니 취재차에 접근하는 폭주족들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엄호해 주었다. 취재가 끝날 때쯤 저희를 왜 도와주시나고 물어봤더니 취재가 너무 위험해 보여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취재가 끝났나고 물어보기기에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더니 성함도 물어보기 전에 그럼 수고하시면서 영화처럼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진 진정한 라이더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윤석 영상취재팀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

# 과학축전의 주인공이 된 사이언스TV



가 되었다.

행사장을 찾은 과학계 인사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사이언스 TV'를 널리 알리게 된 이번 전시회는 어렵게 만 생각돼 온 과학도 얼마든지 친근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이번 행사 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중계차 전

시지원 등 따뜻한 협조를 해준 이인배 지국장, 김범환 기자를 비롯한 광주지국 사우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일주일 이상 수용소 생활(?)을 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스텝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

한정호 사이언스TV 제작팀장

## 중국 대지진 취재기

# 칭촨현에서의 하룻밤

5월 21일 수요일, 중국에 도착한 지 나흘째, 취재진은 지진피해로 고립되었던 칭촨현으로 떠났다. 칭촨현은 청두시에서 아침 7시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3시간여를 달린 후 험난한 산길을 오르내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행히 가는 길에 공안들의 검색은 없었다. 그러나 도로가 문제였다. 좁고 굴곡진 산길을 달리기도 아찔한데 바위를 피하고 절반이 날아간 도로를 달리려니 과격한 운전 솜씨를 자랑하던 현지 운전기사인 장씨도 등골이 싸늘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칭촨현 약 40km를 남겨둔 지점에서 산사태로 인해 길이 통제되었다. 이때 장씨가 조심스럽게 취재진에게 말을 건넸다. “그만 돌아가는 게 어때?”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는 법. 다행히 기다린 지 30분 만에 도로는 뚫렸다. 굽이진 산길을 달리고 달려 저 앞에 파란색 천막행렬이 보였다. 처참히 부서진 가옥들, 공동 급수대에서 설거지며 빨래를 하는 사람들. ‘여기가 우리가 취재해야 할 곳이구나.’

현지 농민의 안내로 언색호와 갈라진 산을 찾아갔다. 비포장 산길을 오르다 산사태가 일어난 길 앞에 차가 멈춰 섰다. 흙더미 너머로 언색호가 있다는 것이다. 무너진 흙더미를 넘어 왼쪽으로 틀자마자 긴 호수가 나타났다. 호수 한 가운데에 커다란 나무가 서있고, 맑은 물 아래로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야채들이 보였다. 좁은 실개천이 산사태로 막히면서 물이 차올라 개천 양쪽



의 밭을 삼켜버린 것이다.

호수를 따라 30분을 걸어 올라갔다. 그러나 호수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 계곡이 끝나는 곳이 호수의 끝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언색호 촬영을 마친 시간이 오후 5시. 지금부터 산의 갈라진 틈을 찾아가야한다. 해지기 전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했다. 현지 농민이 앞장서서 산을 올랐다. 카메라(PD-150)도 가벼운데 왜 아래 힘들지…? 그 이유는 다른 아니라 우리를 안내하는 농민의 발걸음이 무지 빨랐던 것이다. 허름한 천운동화를 신고서 어찌나 빠른 걸음으로 오르던지… 계단과 전히 숨소리와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인 듯했다.

산 중턱에서 바라보니 건너편 산의 산사태와 갈라진 틈의 전체적인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카메라 레코

드버튼을 눌렀다. 내 거친 숨소리가 녹음될 정도로 액정화면은 위아래로 쉼 없이 움직였다. ‘젠장, 줄은 전혀 쓰지도 못하겠는데…’ 산을 1시간 정도 오르자 발아래로 갈라진 틈이 나타난다. 팔뚝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폭에 수 미터 길이의 틈이 반복적으로 길을 따라 나 있다. 여진이 있을 경우 바로 산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산을 내려갈 때까지 여진이 없기를…’

칭촨으로 내려오는 길에 해가 저문다. 취재진은 이곳 주민들의 저녁 생활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곳 주민들에게서 받은 느낌은 여유와 인심이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의 대부분이 밝은 웃음을 머금고 있다. 카메라를 보고 모여든 주민들이 건네는 말에 내가 답할 수 있는 말은 ‘한궈(한국의 중국발음)’ 뿐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오~ 한궈!’ 하며 신기한 듯, 반가운 듯 마냥 웃는다. 천막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는 4식구의 어머니는 취재진을 보자마자 죽을 페 담는다. 취재진에게 권하는 것이다. 4식구 먹기에도 끄덕하지 않을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인에게 그들의 밥을 나눠 준다. ‘역시 시골인심인가?’

오늘의 취재를 마치고 취재진의 저녁시간. 칭촨에서의 하룻밤은 이곳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인 민간구조대와 함께 묵게 되었다. 구조대가 마련해준 식사는 중국에 있는 열흘 동안에 먹은 식사 중에 최고의 밥상이었다. 흰쌀밥에 김치, 구운 김, 꽁치찌개. 너무 맛이 있어 밥 두 그릇에 누룽지까지 배가 터지도록 먹어버렸다. 텐트에서 자는 동안 두 번의 여진을 느꼈으나 너무 피곤해서인지 꿈속에서 지진이 일어난 듯 했다.

곽영주 영상취재팀

## 동호회 탐방 - 영상 연구회

##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인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영상을 더 알고 싶고 멋진 영상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모이세요.  
왼쪽부터 김환영 차장, 이재석, 최재용, 김재동 동호회장, 염광훈, 김여진, 정미순 차장, 최준영 차장, 변재철

2월 20일, YTN 17층 대회의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상 연구회가 첫 모임을 갖게 되었다. 배움에 목이 말라 영상 연구회 가입에 주저 없이 나선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 없이 월급 통장에서 동호회비만 빠져나가 서서히 불안한 마음이 들던 때. 바로 그 때 전격 발표된 영상 연구회 창립 소식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단비와 같았다.

영상 ‘연구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첫 모임은 이화 여대 정대현 교수님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넓은 기호의 영상 : 영상은 비지성적인가’ 업무가 끝난 후 곧바로 이어진 특강에 졸음이 쏟아질 만도 한데 열성을 갖고 모인 해외 방송팀의 젊은 PD 4인방과 다양한 부서에서 모인 선배들의 눈빛에서는 실새없이 레이저 광선이 쏟아 나오고 있었다. 보도 영상에 대한 일반 담론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후 뒤풀이 자리로도 이어졌다. 영상에 대한 궁금증과 열정을 갖고 모인 영상 연구회 회원들.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선·후배들의 모습 속에서 영상 연구회의 밝은 미래를 점칠 수 있었다. 석 달여 만에 가진 두 번째 모임. ‘영상 잘 만들기’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이론과 실습에 들어갔다. 매년 해외 방송팀에서 실시하는 ‘해외 리포터 교육’ 때마다 김재동 부장님의 강의에 호평이 이어져 왔던 터라 큰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기본적인 캠코더 조작에서부터 카메라 샷과 화면의 구도, 장면을 분할하는 방법까지… 어깨 너머로 배워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고, 다시금 기초부터 탄탄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직접 캠코더를 들고 자유 주제로 짧은 영상물을 만들어

보는 시간. 방송 경력 4년에 본 것은 많아 마치 영상 기자가 된 듯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사무실 전경을 캠코더에 실새없이 담아보았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모니터 시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나의 첫 작품은 감히 영상 작품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허술했다. 화면들 간의 의미 연결은 상실한 지 오래고, 화면에서 윗 여백은 말할 수 없이 넓었고, 화면 속 인물이 갑자기 움직일 조짐을 보이면 카메라 방향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는 나의 속내가 영상에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영상 새내기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화면마다의 의미를 억지로 뽑아내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김재동 회장님 덕분에 다시금 용기를 얻어 다음 작품을 기약하게 되었다.

다음 모임 때부터는 삼삼오오 조를 이뤄 본격적인 작품 촬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우리가 만든 영상 작품을 YTN 식구들에게 선보이는 작은 영상제로 마련된다고 한다. 영상 동호회 식구 가운데에는 이미 수년간 영상 촬영을 맡아온 베테랑 선배들도 있고, 카메라 작동법 조차 서툰 새내기들도 많다.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주고받는 아이디어들이 모아져 YTN 뉴스 보도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듯 영상을 알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을 때 보이는 뉴스 속 세상은 분명 지금 보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아직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보도 영상을 이해하고, 뉴스를 좀 더 재미있게 보고 싶은 사람, 지금보다 더 멋진 영상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 YTN 뉴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언제든 대환영이다!

김여진 해외방송팀



**별별뉴스를 소개합니다**

# 별난 세상, 별의 별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별난 뉴스



별별뉴스 앵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디씩 했다. 왼쪽부터 이승윤▶ 得勝雲(득룡망축)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문자가 천 개까지 올까 했는데 2천 개를 넘고나니 더 욕심이 생깁니다. 만개가 오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지언▶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스, 진정 살아있는 뉴스!! "별별뉴스 MC라서 행복해요~" 김재형▶ 앵커도 별나고, 뉴스도 별나고, 그래서 별별뉴스!!

"별별뉴스가 60대인 저에게도 문자를 배우게 하는군요"

별별뉴스를 시작한지 한 달쯤 지났을 때 #2323으로 들어온 이 문자가 저를 기분좋게 한방 먹였습니다. '엄지족과는 무관할 것 같은 YTN 시청자들이 과연 문자 참여를 할까?' 했던 제 생각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여쭤란 듯이 일깨워주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방송 초기에는 #을 어떻게 눌러야 하냐는 문의 전화도 여러 번 받았고, 참여자들에게 답례로 드리는 USB가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별별뉴스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에 대해 갖고 있던 제 편견을 완전히 깨 주었습니다. (고백컨대 저만해도 타 방송사에 문자 보내본 적 딱 한번 뿐입니다. 것도 상품에 눈이 멀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러려니 했던 겁니다.)

## ★하나. 별별이의 탄생은…

DMB 주 시청자인 젊은층을 겨냥한 상큼 발랄한(?) 뉴스, 심각하게 아니라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뉴스, 그래서 이게 뉴스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지고 어쨌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눈이 가는 뉴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눈만 가는 게 아니라 '손까지 가는 뉴스'를 만들 수 있을지는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자가 많지 않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시청자들의 문자를 받을 때면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쏘아올린 전파가 공중에서 사라지는 건지 시청자에게 가닿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던 과거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즉각적인 피드백에 대한 반가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침묵하던, 아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청자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audience를 수용자라고 했던가요? 능동적인 시청자는 이제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들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귀찮아서 그만 둘 법도 한데 모르는 문자

를 배워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 ★둘. 별별이의 성장기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별별뉴스를 별난 뉴스들을 모아 눈길을 끄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별의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는 별별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원하면 누구나 들어와서 놀다갈 수 있고, 놀다보면 뭔가 하나는 생각하게 하는 놀이터로 말입니다.

## Q. 지금 당신의 행복점수는?

"생활은 너무 힘들지만 잘 커준 애들을 생각하니 90점은 되네요"

"50점. 130만원 월급으로 4인가족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 현실이 싫습니다"

"50점 이하. 꿈이 있지만 키워갈 수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

## Q. 불성실한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해야?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머슴에게 밥 주는 주인은 없다. 일한 만큼만 줘야 된다"

"출근 카드를 만들어 주고 세비를 일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삭감뿐만 아니라 아예 별금도 물려야 합니다."

날카로운 사회 이슈든, 둥글 뾰족한 인생사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면서 맞장구도 치고, 화도 내고, 위안도 받는 것이 별별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MO(Message Oriented)시스템이라는 작은 창구를 열어놓았을 뿐인데 쌍방향 뉴스의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시청자들입니다. 이 놀이는 심심풀이 수다나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시가 추진하던 정책을 보류시켰습니다.

## ★셋. 별별이의 꿈, 21세기판 'public sphere'를 향하여

20여 분이라는 시간동안 수백, 수천 명의 시청자가 토론을 벌입니다.(요즘 인기 라디오에서는 시답잖은 퀴즈 하나만 내도 순식간에 수천 통씩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만 그런 단순 수치와 참여의 충성도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최고 문자수신 기록은 2천 2백 86건! 채 1초도 안되는 찰나마다 새로운 문자가 들어오는 셈입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찬반 대립 각을 세우기도 하는 이 별난 공간! 이런 게 바로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공론의 장(public sphere)'의 21세기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별별이는 지금 부족한 점도 많고 그래서 가야할 길이 까마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을 빛내는 스타들, 바로 시청자 논객들이 별별에 있는 한은 말입니다.

## ★ 끝으로…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나의 오른팔 빠릿연애, 코믹 일러스트의 대가 아트란정, 완전 믿음 든든성진, 정중동 기특은희, 그리고 별별의 보배인 열정적 투잡족 베터제 형과 현학승운, 그들의 별난 마님 완소지연, 행동하는 저성 민경작자, 거기다 복잡다단한 포맷 때문에 고생하는 기술팀, 그리고 절체시간 맞추느라 공지 타는 YTNMB와 YTN 주조식 구들, 별별의 든든한 방패 박철언·박만희 선배, 마지막으로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별의 가능성 을 믿고 지지해주신 선배님들께 이 공간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제 힘입니다. \*^^\*



오윤정 별별뉴스 PD